

제18호 2020.04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과제

시민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정철(행정학 박사)  
jcleee@gyri.re.kr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황휘옥(행정학 석사)  
retinder0b@gyri.re.kr

## Contents

- I. 논의의 배경
- II. 국내 발생 동향 및 정부 대응 현황
- III. 고양시 내 발생 현황 및 주요 대응
- IV.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을 위한 관리과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감염병의 일종으로 발견되어 급속도로 확진자 및 사망자를 야기하였던 코로나 19(COVID-19)는 3월 31일 기준 206개 국가로 확산된 가운데 8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3만8천여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공중보건 위기의식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금융위기와 경제난 초래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2월 18일 이후 집단감염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3월 8일까지 약 20일동안 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3월 31일 기준 9,786명의 확진자와 1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위기관리체계상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red)’단계로 격상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하는 한편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 대응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양시 내에서는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없는 가운데, 이들 중 6명이 퇴원하였고 18명이 치료중인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7명 중 17명이 해외 방문으로 인한 해외 유입자 유형에 해당하였으며 대면 접촉에 의한 감염자는 10명이었다. 지역사회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추진·지원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크게 의료적 대응, 방역관리, 행정적 대응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양시의 의료적 대응에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추진한 드라이브 스루식 선별진료소(안심카 선별진료소)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고양시는 1월 26일 관내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와 명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등 7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교 제1공용 주차장을 활용하여 2월 26일부터 드라이브 스루 진료 형태의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양시가 선례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검사 대상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와 문진, 처방 등 일련의 모든 검사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 형태이며 현재는 선례로서 각 지자체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료 관리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고양시는 방역정책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활동 확대, 취약계층 대상 개인 위생물품 지급, 긴급 방역단 편성·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행정적 대응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TF팀 구성 및 세제지원,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경기부양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국면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전세계적인 안전 문제로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나 생활불편 초래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는 만큼 향후 지역사회에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방역체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제공 등 확진자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감독 노력 뿐만 아니라 SNS나 드론 등 최첨단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로 피해 구제 및 생활불편 해소 측면에서 기존의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운영 형태의 배달 앱 개발, 드라이브 스루식 마켓 등의 다양한 형태의 경기부양책 지원과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로 안전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관리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고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아래 정부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이 함께 서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역체계를 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I. 논의의 배경

GYRI

####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제 확산

-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 성의 우한시에서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것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2020년 1월 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라고 규정함에 따라 새롭게 명명된 신종 질병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임
  - 코로나19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침 등에 의해 비말(물방울)이 바이러스·세균과 섞여 나와 타인의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통산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코로나19는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코로나19는 처음 보고된 지 2달 만에 중국 내에 7만 8,497명의 확진자와 2,74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2월 27일 기준), 전세계적으로는 6대주 전체로 확산되어 8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우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등 유럽과 중동 지역 등이 새로운 확산 지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함
- 이후 코로나19는 3월 31일 기준 206개 국가로 확산된 가운데 80만 명 이상(3월 31일 오후 9시 기준, 80만 1,400명)의 확진자, 38,743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공중보건위기를 비롯한 금융 위기와 경제난 초래 등 신종 감염병에 의한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그 심각성이 격상됨에 따라 3월 11일 감염병 위험수준에 따른 1~6단계의 경보 단계 중 최고 수준인 6단계인 세계적 대유행 단계,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함
  -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최근 사례로는 2009년 신종플루 사례가 존재하지만, 신종플루 당시 2009년 214개국에서 18,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코로나19 사

태가 갖는 심각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2020년 3월 31일 오전 9시 기준)

순번	지역	국가명	확진자 수 (단위:명)	확진자 수 비율	확진자 증감 (전일대비)	사망자 수 (단위:명)	사망자 증감 (전일대비)	사망률
1	미주	미국	161,807	21.01%	▲22,132	2,978	▲542	1.8%
2	유럽	이탈리아	101,739	13.21%	▲4,050	11,591	▲812	11.4%
3	유럽	스페인	85,159	11.06%	▲6,362	7,340	▲812	8.6%
4	아시아	중국	81,518	10.58%	▲48	3,305	▲1	4.1%
5	유럽	독일	66,885	8.68%	▲4,790	645	▲120	1.0%
6	유럽	프랑스	44,550	5.78%	▲4,376	3,024	▲418	6.8%
7	중동	이란	41,495	5.39%	▲3,186	2,757	▲117	6.6%
8	유럽	영국	22,141	2.87%	▲2,619	1,408	▲180	6.4%
9	유럽	스위스	15,475	2.01%	▲1,139	295	▲38	1.9%
10	유럽	벨기에	11,899	1.55%	▲2,765	513	▲160	4.3%
11	유럽	네덜란드	11,750	1.53%	▲884	864	▲93	7.4%
12	유럽	터키	10,827	1.41%	▲3,425	168	▲60	1.6%
13	아시아	대한민국	9,786	1.27%	▲125	162	▲4	1.7%
14	유럽	오스트리아	8,813	1.14%	▲522	86	▲18	1.0%
15	미주	캐나다	7,424	0.96%	▲1,166	89	▲2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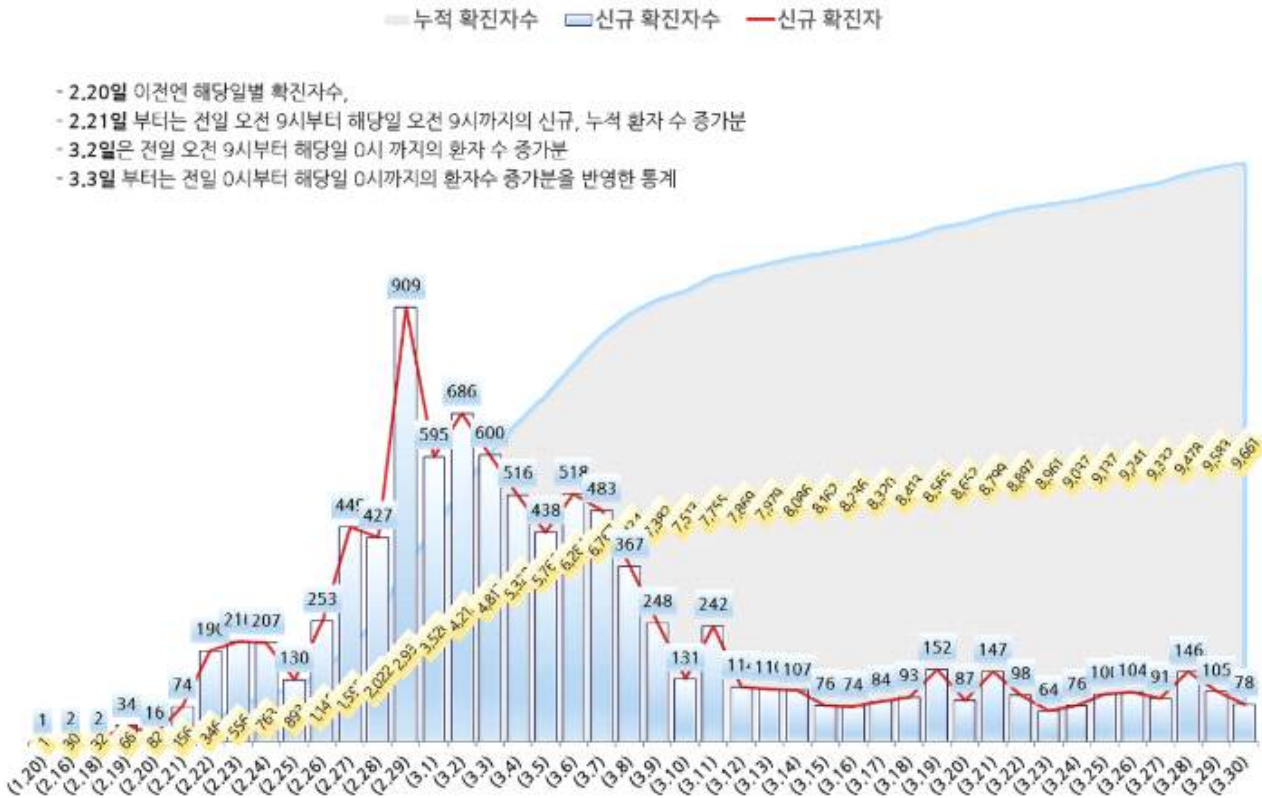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sup>1)</sup>

-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28번째 확진자 보고 이후 2월11일부터 2월15일까지 5일동안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등 완만한 증가 추이를 나타냈으나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견 이후 특정 종교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확진자 증가 추세가 급등하면서 지역적 전파 추이 또한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산됨
-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19일동안 약 7,30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보고된 가운데 2월 29일에는 하루 909명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3월 1주간 평균적으로 매일 5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해당 기간동안 가장 큰 폭의 확산세를 나타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외현황(<http://ncov.mohw.go.kr/>) 접속일: 2020.03.31.



<그림 1> 국내 일일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3월 30일 기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sup>2)</sup>

- 3월 8일 이후 확진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보였으며, 3월 30일 기준 최근 일주일동안에는 평균적으로 매일 약 9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럽·미주 지역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차 통제·관리의 영역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내에도 3월 31일 9시 기준, 현재까지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에도 47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서울시 또한 454명의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양시 차원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3월 31일 9시 기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1만명에 가까운 9,786명(신규 확진자 125명)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대응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비롯하여 고양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http://ncov.mohw.go.kr/>) 접속일: 2020.03.30.

## II. 국내 발생 동향 및 정부 대응 현황

GYRI

### □ 국내 발생 현황

-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 시 필요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는 <그림 2>와 같음
  - 대규모 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며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지만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성이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운영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사고의 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들을 결정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며 본부장은 고양시장과 같은 지자체장이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또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단계로 구분됨
  - ‘경계’(Orange)단계는 위기 유형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구분하며 주요 대응 활동으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설치·운영,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회의 개최,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심각(Red)’단계는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확산 징후가 있을 때 선포 가능하며,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등을 비롯하여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교육부),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 편성(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격리시설 확보 노력 등이 전개됨

<그림 2>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

위기경보 단계	대응 체계		
	중앙	지자체	
① 관심	감염병별 대책반 (질병관리본부)	지역 방역대책반 (발생 지자체)	
②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시·도, 발생시·도의 모든 시·군·구)	
③ 경계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범정부 지원본부 (행정안전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발생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④ 심각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범정부 지원본부 (행정안전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전국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9)<sup>3)</sup>

-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해외 유입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 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 강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 2>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위기 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해외 신종감염병 전파 형태	코로나19 격상 시기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후 활동 감시·대비계획 점검</li> <li>•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책반」 구성 운영</li> <li>-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주간 상황점검 및 주간 동향보고</li> <li>- 해외 질병발생 상황 및 최신 연구동향 등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li> <li>-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활동 및 입국 후 해외여행객 모니터링</li> <li>- 국내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등</li> </ul>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조체제 가동</li> <li>•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li> <li>-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주간 상황점검 및 주간 동향보고</li> <li>- 해외 질병발생 상황 및 최신 연구동향 등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li> <li>- 검역활동 강화(주기장게이트 검역 실시(입국자 개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li> <li>-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동 및 개인보호장비, 진단시약 배포 등</li> </ul>	국내 유입	1월 20일 (국내최초발생)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체제 가동</li> <li>•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li> <li>•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강화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필요시 관련 협조기관 업무지원)</li> <li>-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전국 방역요원 24시간 비상 방역체제 등)</li> <li>- 국가 비축물자(개인보호장비 등) 수급체계 적극 가동</li> <li>- 국가 방역·검역인력 보강</li> <li>-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브리핑 등</li> </ul>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1월 27일 (확진자 4명)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역량 총동원</li> <li>•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강화</li> <li>- 국가 모든 가용 지원 파악 및 동원 방안 마련(필요시 관련 협조기관 업무지원)</li> <li>•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강화</li> <li>- 필요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요청</li> <li>-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운영강화 지속</li> <li>-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방안 마련</li> <li>-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브리핑, 대국민 담화 등</li> </ul>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2월 23일 (확진자 602명)

출처: 질병관리본부<sup>4)</sup>

4)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300>) 접속일: 2020.03.30.



- 이후 1월 27일 국내에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관’으로의 기능 전환, 시군구별 보건소·지방의료원에 대한 선별 진료소 지정, 검역현장에 복지부·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인력 파견 등 대비체제로 전환함
- 2월 23일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 ‘심각’단계로 상향하여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함. ‘심각’단계에서는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 모두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에 임하게 됨
  - 이에 정부는 3월 21일 특별 담화를 통해 4월 5일까지 보름동안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외출 자제 요청, 재택근무 활성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중단 권고 및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한 철저한 규제·감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가운데,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는 등 강도 높고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추진함. 또한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함
  -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부는 전국단위 학교에 3월 2일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이후 추가적으로 연기 결정을 함으로써 3월 31일 기준,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연장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표 3>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 30.(일) 0시 기준	395,194	9,661	5,228	4,275	158	13,531	372,002
3. 31.(월) 0시 기준	410,564	9,786	5,408	4,216	162	16,892	383,886
변동	15,370	+125	+180	-59	+4	3,361	11,884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2020)5)

5)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31.

○ 3월 31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786명(해외유입 518명)이며, 이 중 5,408명이 격리해제된 것으로 보고됨.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고, 격리해제는 18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관련 지역별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지역별 확진자 현황 (3.3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	누적 확진환자수	확진자 비율	전일 대비 신규 증가수, 증가비율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450	4.60%	▲24	19.2%	343	107	0	4.62
부산	119	1.22%	▲1	0.8%	29	87	3	3.49
대구	6,684	68.30%	▲60	48.0%	2,624	3,946	114	274.33
인천	64	0.65%	▲6	4.8%	48	16	0	2.17
광주	20	0.20%	-	-	6	14	0	1.37
대전	36	0.37%	▲2	1.6%	18	18	0	2.44
울산	39	0.40%	-	-	20	19	0	3.40
세종	46	0.47%	-	-	34	12	0	13.44
경기	476	4.86%	▲13	10.4%	304	166	6	3.59
강원	36	0.37%	-	-	12	23	1	2.34
충북	44	0.45%	-	-	22	22	0	2.75
충남	128	1.31%	▲1	0.8%	38	90	0	6.03
전북	13	0.13%	-	-	6	7	0	0.72
전남	9	0.09%	-	-	6	3	0	0.48
경북	1,300	13.28%	▲2	1.6%	454	808	38	48.83
경남	96	0.98%	▲1	0.8%	29	67	0	2.86
제주	9	0.09%	-	-	6	3	0	1.34
검역	217	2.20%	▲15	12.0%	217	0	0	-
총합계	9,786	100%	▲125	100%	4,216	5,408	162	18.87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2020)<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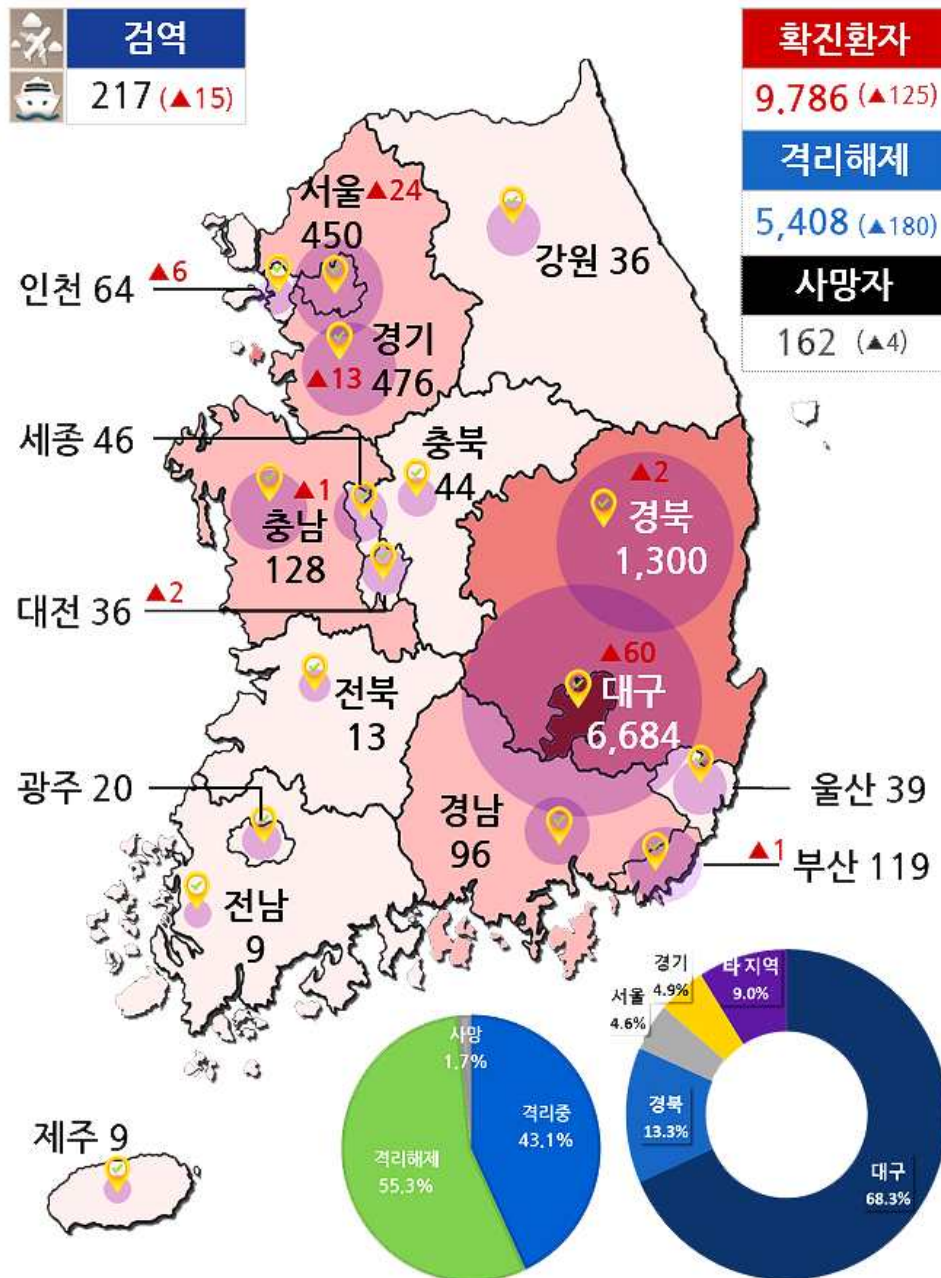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62명(대구 60명, 경북2명), 서울 24명, 경기 13명, 대전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부산, 충남, 경남 지역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또한 검역과정에서 15명이 확진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됨.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된 확진 사례 가운데 약 84%는 집단발생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됨

6)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31. 내용을 재정리함.



- 한편 경기도의 경우, 누적 확진자 476명 가운데 성남시(110명), 부천시(69명), 용인시(53명), 수원시(42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양시는 17명으로 보고됨

<그림 3> 국내 지역별 확진환자 누적 현황(03.31. 0시 기준, 1.3 이후 누계)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sup>7)</sup>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http://ncov.mohw.go.kr/>) 접속일: 2020.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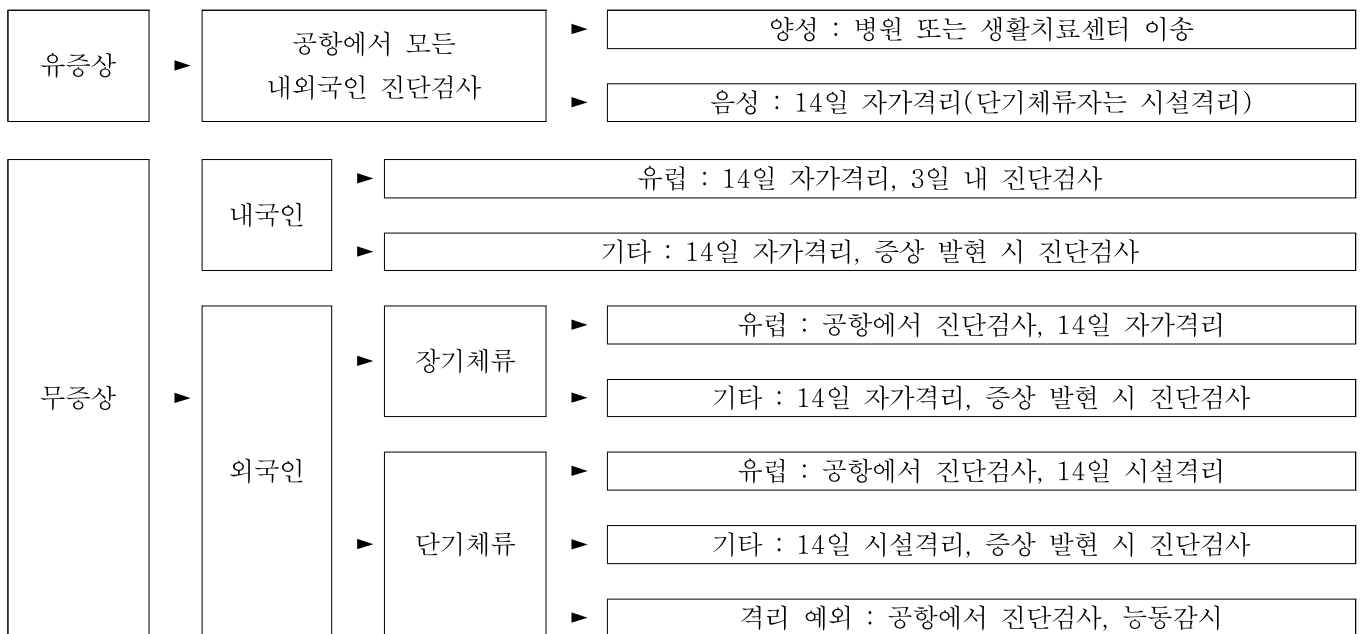
<표 5> 경기도 시군 확진자 현황

총계	성남	부천	용인	수원	군포	화성	평택	고양	안양	안산	남양주	광주	김포	이천	광명
478 <sup>8)</sup>	110	69	53	42	24	18	18	17	16	15	13	12	10	9	8
시흥	포천	과천	의정부	의왕	파주	오산	구리	안성	하남	양주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7	6	6	6	5	5	4	3	1	1	0	0	0	0	0	0

출처: 경기도청(2020)<sup>9)</sup>

- 또한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를 시행함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이는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운영됨

<표 6>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이후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2020)<sup>10)</sup>

8) 3월 31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와 2명 차이가 존재하며(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의 경우, 경기 476명으로 보고), 이는 3월 30일 0시부터 3월 3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및 1차 분류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데에서 기인함.

9) 경기도청 -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환자 현황(<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150&menuId=2909>) 접속일: 2020.03.31.

### III. 고양시 내 발생 현황 및 주요 대응

GYRI

#### □ 고양시 내 발생 현황

○ 2020년 3월 31일 기준 고양시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은 총 27명임

- 3월 31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3월 1일 이전까지 확진자로 발견된 6명은 퇴원한 상태이며, 10번과 15번 확진자를 제외하고 7번째 확진자부터 27번째 확진자까지 현재 18명이 치료중인 상황임

<표 7> 고양시 확진자 현황(03.31. 기준)

구분	성별	연령대	지역	감염 경로	확진판정일자	진료병원	비고
1	남	50대	일산서구	해외유입	01.26	명지병원	퇴원
2	여	30대	일산서구	해외유입	02.10	명지병원	퇴원
3	남	50대	덕양구	대면접촉(추정)	02.25	서울보라매병원	퇴원
4	여	70대	덕양구	대면접촉(추정)	02.27	파주의료원	퇴원
5	여	20대	일산서구	대면접촉	02.27	경기의료원(파주)	퇴원
6	남	40대	덕양구	대면접촉	03.01	경기의료원(수원)	퇴원
7	남	30대	덕양구	대면접촉(추정)	03.05	경기의료원(포천)	치료중
8	남	30대	덕양구	대면접촉(추정)	03.06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9	남	90대	덕양구	대면접촉	03.08	서울의료원	치료중
10	남	20대	덕양구	대면접촉(추정)	03.08	경기의료원(파주)	퇴원
11	여	20대	덕양구	대면접촉	03.10	경기의료원(포천)	치료중
12	여	30대	덕양구	대면접촉	03.10	성남의료원	치료중
13	남	20대	일산동구	해외유입	03.15	경기의료원(의정부)	치료중
14	여	20대	덕양구	해외유입	03.16	인천의료원	치료중
15	여	30대	일산서구	해외유입	03.18	경기의료원(파주)	퇴원
16	여	20대	일산동구	해외유입	03.20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17	남	30대	덕양구	해외유입	03.21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18	여	20대	덕양구	해외유입	03.21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19	남	60대	덕양구	해외유입	03.22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20	남	20대	일산서구	해외유입	03.22	경기의료원(포천)	치료중
21	남	20대	일산동구	해외유입	03.24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22	여	20대	일산동구	해외유입	03.25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23	여	20대	일산동구	해외유입	03.27	경기의료원(포천)	치료중
24	남	20대	일산동구	해외유입	03.27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25	남	20대	일산서구	해외유입	03.28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26	여	20대	덕양구	해외유입	03.28	경기의료원(파주)	치료중
27	남	30대	덕양구	해외유입	03.30	성남의료원	치료중

출처: 고양시청<sup>1)</sup>

10)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19 국내 발생 현황”, 2020.03.31.

- <표5>와 같이 질병관리본부 공식 보도자료를 비롯하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통계자료에서 고양시 지역 확진자가 17명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한 데에는 해외입국자 중 고양시로 오지 않고 입국 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바로 검사 시행 및 검역소 시설격리 조치되어 시설 격리 중 확진될 경우 지역감염자가 아닌 검역 중 확진자로 분류된 데에서 차이가 발생함
  -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고양시 내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14명, 30대가 7명, 40대 이상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남. 2~30대의 경우 해외 방문으로 인한 확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1명 15명, 약71%), 40대 이상의 확진자 6명 가운데 4명은 최근 출국 경험이 없는, 대면접촉에 의한 확진자로 구분됨.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남성이 15명, 여성이 12명으로 나타남
  - 또한 고양시는 2020년 3월 31일 기준 접촉·관리대상자로서 총 440명의 자가격리 대상자와 2명의 능동감시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들은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생필품 지원, 심리 치료 등이 제공됨
- 고양시의 경우 2020년 1월 26일 첫 번째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표7>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월 31일까지 지역별로 덕양구에서 15명, 일산서구 6명, 일산동구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그림 4> 고양시 내 접촉 감염자 지역별 발생 현황



출처: 고양시(2020)<sup>12)</sup>

11) 고양시 일일 대응 상황보고 자료를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 그러나 이 가운데 해외 방문 후 확진판정을 받은 유형에 17명이 포함되어, 지역사회 내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거나 판명된 경우는 10명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발생 현황을 정리하면 <그림4>와 같이 일산서구 1명, 덕양구 9명으로 파악됨
- 고양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대하여 일전의 신종플루 및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 정책은 의료적 대응, 방역, 행정적 대응 등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의료적 대응은 확진자 혹은 감염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진료·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며, 방역정책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행하는 각종 방역활동과 개인용 위생용품인 마스크·손세정제·진단키트를 비롯한 구호물품을 기부·대여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됨. 그리고 행정적 대응은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행하는 캠페인 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권고, 경기부양책 등이 포함됨
- 그 밖에도 고양시는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 인근지역과의 MOU 체결 등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 고양시의 주요 대응 현황

### □ 의료적 대응

#### ① 선별진료소 운영

- 고양시는 2020년 1월 26일 국내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관내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로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고양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함
  - 고양시에서는 신종 플루와 메르스 사태의 성공적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월 28일에는 명지병원, 동국대병원, 백병원, 일산병원의 4대 병원과 민관의료 협의체를 설치 운영함
- 이를 계기로 덕양구, 일산 동·서구 보건소와 명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7곳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함.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병원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도 평일 09:00~21:00, 휴일에는 09:00~18:00로 연장운영하며 감염증의 확산 방지 및 증상자의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밖이나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

12) 고양시(2020).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고양시의 주요 대응”. 고양시청

- 자가 병원에 출입하기 이전에 증상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임. 선별진료소에서는 증상에 대한 진료와 의심환자 검체 채취·이송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고양시에서는 선별진료소까지 의심 증상자를 직접 이동시키는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고양시 소재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선별진료소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

<그림 5> 고양시 명지대 병원에 설치·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출처: 뉴스1 보도자료<sup>13)</sup>

- 최근에는 해외 확산에 의한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양시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공항리무진버스를 이용해 킨텍스 선별진료소로 이동,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거처(킨텍스 캠핑장)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함
  - <표7>의 고양시 확진자 현황과 같이 최근까지 발생한 27명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이행하고자 추진되었으며 킨텍스 선별진료소와 임시거처는 킨텍스 제2전시장 후면, 3만9000㎡ 면적의 캠핑장에 마련됨. 해당 부지에는 카라반 16대·텐트 30동·몽골텐트 5개동을 마련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대기 인원들을 수용할 예정임. 캠핑장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일부 배치하고, 캠핑장 소독 및 격리자 관리를 위해 의료진 및 관리요원을 투입하며, 경찰의 협조를 구해 캠핑장 주변도 철저히 통제할 예정임
  - 킨텍스 선별진료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지정병원으로 이동해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차 또는 고양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귀가버스를 이용해 자택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짐

13) 뉴스1 보도자료.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 진료소”, 2020.01.27.



②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 사례

- 고양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대응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 증상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 및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는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덕양구 주교 제1공용 주차장을 활용하여 2020년 2월 26일부터 운영함
-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양시가 선례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차를 탄 채로 접수부터 문진, 처방 등 일련의 모든 검사과정을 간편하고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의미함
  -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차를 탄 채로 접수▶문진▶처방 혹은 검사의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임
  - 선별진료의 모든 과정은 10여 분으로 일반 선별 진료소에 비해 신속하다는 이점을 지님. 그리고 차에서 창문 일부를 연 상태에서 진료과정이 진행되어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대기자 교차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진료하는 의료진의 보호 효과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음압텐트 등 일반 선별 진료소에 비해 요구되는 장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설치하기가 용이하며, 소독과 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님

<그림 6>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검진



출처: 고양포커스 보도자료<sup>14)</sup>

14) 고양포커스 보도자료. “고양시, 전국최초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 운영 시작... 차안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수부터 검진·처방까지”, 2020.02.28.

-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혼자 진료소를 방문해야 하며,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개인병원 방문 후 코로나19 검사의뢰서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중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음
-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용자 수는 3월 16일 기준 2,22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는 서삼릉 청소년 야영장 공간을 제공하여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결과 자가 격리 판정을 받은 이들 중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③ 화상진료 서비스 제공

- 고양시는 2월 6일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보건소 진료실과 선별진료소 사이에 태블릿 PC를 활용한 화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고양시의 원격진료 시스템은 관내 3개 보건소에 의심증상자가 방문하였을 때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화상통화를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을 의미함
  - 이러한 원격 진료서비스는 비교적 과정이 간소하여 공공보건기관의 진료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또한 선별진료소 내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만큼 의심증상자의 대기 시간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 대기자 간의 교차 감염 우려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 방역정책

#### ① 다중이용시설 소독

- 고양시는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관공서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고양시는 관내 첫 번째 확진자로서 국내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음. 이러한 일환에서 고양시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진환자 접촉시설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음
  - 이러한 시설방역활동에는 주로 분무 방역이 이루어지며, 수돗물 소독에 쓰이는 살균제로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잔존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HOCL(미산성차아염소소)이 사용됨

- 또한 방역 활동의 범위는 초기에는 관공서·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어린이집·사회복지관, 터미널, 버스정류소 등을 비롯한 대중교통 시설, 일반 상업시설로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전사적인 차원의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중임
- 방역은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 빈도와 시설의 교차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게는 월 2회에서 많게는 수시방역까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또한, 2월 13일에 ‘일제 방역의 날’을 추진하여 공무원, 시민 등 2,500여 명이 합동으로 관내 전역을 방역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음

### <그림 7> 고양시 탄현역, 경로당 방역작업 사례 예시



출처: 고양포커스 및 경기포스트 보도자료<sup>15)</sup>

- 고양시에서는 시 차원의 방역활동 외에도 사회적 기업, 동단위의 자율 방역단, 마을버스 조합 등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덕양구에 설치한 ‘방역도움센터’와 더불어 고양시 소재의 구청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방역 약품과 분무 소독기를 비치하고 대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역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② 취약계층 대상 개인 위생물품 지급

- 고양시는 관내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동원해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방호복 등 각종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역사, 관공서, 어린이집, 노인 종합복지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함. 그 결과 3월 25일 기준 개인 위생용품 배부 누계는 마스크 총 106만 758개, 손세정제 91,193개인 것으로 보고됨

15) 고양포커스 보도자료. “고양시 사회적기업봉사회 행신역~탄현역 역사 8곳 방역소독 실시”, 2020.02.07.  
 경기포스트 보도자료. “고양시 일산동구, 촘촘한 방역망으로 신종CV 예방에 박차”, 2020.02.11.



- 고양시는 2월 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와 같은 개인 위생물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2월 20일까지 종합 사회복지관에는 마스크 253,000개, 손세정제 6,312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손세정제 4,000개, 경로당에는 마스크 17,400개, 어린이집에 마스크 12,600개의 배부가 이루어짐
- 또한, 고양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3월 21일부터 KF94급 효과가 있으며 세탁 및 필터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구매하고 이를 마스크 5부제를 이용해 개인용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임산부 및 출산 6개월 이내 산모 5,200여 명, 산후조리원 종사자 3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우편 지급함
- 이러한 고양시 차원에서의 방역물품 지급 외에도 고양시 관내의 기업, 종교회, 협동조합을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마스크, 방호복, 손세정제, 성금 등 각종 물품을 기부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호혜적 지원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음

### ③ 긴급 방역단 편성·운영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 2019년 고양시는 경제위기와 취약계층 고용 촉진 등을 위해 100억여 원 규모의 일자리기금을 조성한 바 있음
- 2020년 2월 2일 고양시는 일자리기금 투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는 긴급 방역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됨. 긴급 방역단은 발열감지요원 6명, 전철역 등의 다중이용장소에 출·퇴근 시간대에 증상을 진료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42명의 지원, 마스크·손 세정제와 같은 개인 위생용품의 수요와 시중 물가를 모니터링하는 물가 모니터요원 20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그림 8> 고양시 긴급방역단 발열 감지반 활동 예시



출처: 고양뉴스 보도자료<sup>16)</sup>

- 이후 2월 23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양시는 기존에 수립한 계획에 방역 기동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200여 명 규모의 긴급 방역단을 편성하고,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함
- 긴급 방역단에 포함된 인력은 공공근로 신청자 중 미채용자와 구직등록자, 그리고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으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로 구성됨. 이러한 관점에서 고양시의 긴급 방역단 운영은 고양시의 공중보건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음

#### ④ 고양-김포-파주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

- 고양시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접 도시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시 간에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3월 19일 체결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기로 함
- 이를 통해 확진자 발생과 동선, 중요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즉각적인 핫라인을 개설하며 진료 격리시설과 보건인력,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짐

#### □ 행정적 대응

##### ① 지역경제 TF팀 구성 및 경기부양책 지원

- 고양시는 2017년 기준 전체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요식업의 비중이 44%에 해당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1~4인 규모의 사업체 비중이 71.9%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산업구조 특성상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유동인구 감소,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이에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월 17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경기부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7,200여억 원 규모의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집행할 지역경제 TF팀을 운영함
- 지역경제 TF팀에서는 고양시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등 세제지원, ▲코로나19 여파 지역화해농가 돕기 캠페인 등을 추진함

16) 고양뉴스 보도자료. “고양시, 코로나19 대처 긴급방역단·지역경제TF팀 가동”, 2020.03.03.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은 고양시의 소상공인 약 3,85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금융지원 정책임. 특례보증 사업은 이전에도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원 규모도 기존 보증 한도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중임
- 또한 고양시는 3월 11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자지원 사업의 규모를 9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여 총 29억원의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의 용자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1~3%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등 세제지원 사업은 2월 28일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표하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해주는 사업임
- 그리고 고양시는 3월 12일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의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함. 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개소와 킨텍스 제1전시장 등이 포함됨
- 코로나19 여파 지역화훼농가 돕기 캠페인은 코로나 여파로 취소된 졸업식 등 행사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청사 내 1층 로비, 3개 구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화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여 고양시민들의 화훼 소비를 신장하고자 추진됨

<그림 9> 코로나-19 여파 지역화훼농가 돕기 캠페인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간담회



출처: 광고신문 및 중부일보 보도자료<sup>17)</sup>

17) 광고신문 보도자료. “고양시 코로나-19 발생에 힘든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2020.02.18.



- 최근 고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상황이 나빠져 점포들이 알바 횟수를 줄이거나 알바 고용을 포기하면서, 생활비를 벌며 취업을 준비하던 준비생들이나 단기 일자리 근로자 등 생활이 불안정해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아르바이트 근로자 100명을 채용하는 ‘고양 알바 100’ 사업을 추진함
  - 고양시는 일자리 지원 기금으로 공공일자리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함. 채용 방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알바 근로자, 소상공인 가족, 구직신청 등록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첨 선발하게 되며 구청, 도서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보조 등 공공일자리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2개월 간 채용하는 방식임
  - ‘고양 알바 100’은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100명을 선발하는 해당 사업에 500명이 넘게 지원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선발인원 추가 방안을 고려 중인 상황임
- 또한 고양시는 3월 5일과 18일 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학교급식지원센터, 6개 지역농협과 '개학 연기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간담회'를 열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과 판로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홀몸노인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1천여 명에게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26일 전달함

**<그림 10> 고양시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매장 운영 사례**



출처: 한국일보 보도자료<sup>18)</sup>

중부일보 보도자료. “고양시,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 간담회 열어 소통”, 2020.02.19.

18) 한국일보 보도자료. “고양시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꾸러미 판매 첫날 완판”, 2020.03.29.

- 그리고 시청과 3개 구청, 고양교육지원청, 유관 기관들에게 농산물 공동구매를 협조 요청하는 ‘자발적 농가 돕기 동참 운동’의 일환으로 27일까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 구성품의 예약판매를 실시함
- 이와 함께 고양시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지원, 판매 경로 다각화를 위해 시민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드라이브 스루 방식) 형태로 ‘고양시 안심 친환경 농산물’ 한정 판매를 실시함. 이러한 농산물 판매 경로 다각화 및 지원 노력은 판로 확대 및 지역 농산물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고양시의 경우에도 일산서구청 앞 파주방향 도로변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안심판매장’ 운영을 통해 4일동안 매일 200개씩 800여 개의 친환경 농산물 세트 구성품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됨

### ② 종교행사의 자발적·일시적 중단 권고

- 고양시는 2월 1일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일반적으로 종교행사의 경우 밀폐된 종교시설에서 많은 수의 사람이 모여서 진행되기 때문에 종교행사 중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장과 종단 지도자들은 마스크·손 세정제의 비치, 종교시설의 소독 등과 같은 예방조치와 더불어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홍보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그 결과, 고양시 소재의 일부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의무 예배 외의 다른 예배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 나섰으며, 의정부 교구를 비롯한 천주교 교구에서도 일시적으로 미사를 중단하며 확산 방지에 협력함. 불교의 경우에도 SNS와 각종 감염증 예방 홍보물을 활용해 신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함

### ③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지원

- 고양시는 2월 4일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밀접·일상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시에서는 예비비를 즉시 투입해 1,500만원 상당의 개별 구호물품(쌀, 생수, 부식류 등)을 구입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급함. 또한, 공무원 50인을 동원해 자가격리자들의 외출 여부·증상 유무를 감시하고, 개별 구호품을 전달함으로써 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임
- 또한, 보건소 차원에서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오전·오후로 나누어 하루 2회 체온 측정, 호흡

기 증상 여부, 격리자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시 차원의 원활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④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및 각종 행사 취소 권고

- 코로나19의 전파경로는 주로 밀접한 사람들 간 접촉에 의한 대인전파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사람들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됨
- 고양시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실시하는 주요 행사의 연기·취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및 동 종합복지관 9개소를 임시휴업함. 종합사회복지관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사람들 간 접촉을 통한 추가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22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관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임시휴업하고 있음
  - 또한, 관내의 헬스장 일부 운영정지, 관내 학교의 졸업식·학위수여식 등 행사 취소, 경로식당의 도시락 대체 배식,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취소 및 연기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지양함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공도서관 등의 부분 휴관이 지속됨에 따라 도서관 방문을 꺼리거나 집에서 도서를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는 도서 안심 택배서비스를 3월 11일부터 제공함. 이는 기존에 장애인, 임산부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에 한해 제공되었던 서비스가 확대된 것으로, 시민들은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서를 배송받을 수 있으며, 고양시 17개 시립도서관 및 지하철 무인함 등을 통해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그리고 고양시는 구로 콜센터 사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직원들 간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시청 제1별관에 있는 민원콜센터의 일부를 일산동구청 전산교육장에 옮기고 전문 상담사를 분산배치하는 등 제2콜센터를 3월 19일 개소·운영함
- 또한 고양시는 방역지침 이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위해 10개 분야 6,347개소(민원콜센터, 노래방, PC방, 학원, 종교시설, 요양병원, 요양·복지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6일까지 2,26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함. 그 밖에도 고양시는 감염병 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참여일지 수첩' 2만5000부를 제작·배부함

## IV.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을 위한 관리과제

GYRI

- 코로나19의 확산 국면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보건안전의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및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3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민원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총 44,263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역대책 관련 의견(39.5%), 피해 구제 및 생활불편 해소(34.5%), 방역·예방 물품 관련 민원(10.8%), 위법행위 및 생활갈등 신고(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방역대책 관련 의견들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필요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 모임, 일반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대책 마련, 재난문자 및 확진자 동선 안내 등의 코로나19 관련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피해구제 및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경기 악화로 인한 민간 사업장 및 근로자 피해 구제 및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등이 요청됨. 그리고 방역·예방물품 관련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마스크 등의 효과적인 배부 문제를 비롯하여 예방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 차원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 운영, 고양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기본소득 지원 제도 추진,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관리 및 재난약자 지원, 합동방역체계 구축 및 예방 물품 등의 자원관리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방역체계 관리

- 확진자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및 감독
- 수원시의 경우 해외입국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을 저지하고자



3월 26일부터 선거연수원에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이하 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생활시설은 수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시설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가 입국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임. 시설의 이용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들임
- 수원시는 입국자를 공항에서 생활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하고, 식사·체온계·마스크 등 위생키트, 검체 검사비용 일체를 국·도비로 지원함. 해외입국자 차량 지원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으며 3월 26일부터 4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임
-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적으로 1~2일 정도 머무르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도록 운영되고 있음. 또한 음성으로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귀가하여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되며, 퇴소 시에도 수원시에서 승합차를 활용하여 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림 11> 수원시 코로나19 지원 서비스의 예

수원시 코로나19 지원 서비스				
구 분	임시생활시설		안심 숙소	안심 귀가
대 상	확진자의 접촉자	무증상 해외입국자 中 신청자 (수원시민)	해외입국자의 국내가족	무증상 미국유럽발 해외입국자
시 설	수원유스호텔	선거연수원	5개 호텔 객실	리무진공항버스
지원내용	· 자가격리기간 임시생활 지원 · 1인 1실 (단, 12세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와 함께 입실)	· 공항에서 임시생활 시설까지 개별 이송 · 검체검사 결과시 까지 - 양성 : 국가지정병원 - 음성 : 귀가	· 해외입국자 가족 호텔비 할인 (약 40~70%) - 팰류 하이엔드 호텔 -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 - 라마다프라자 수원 -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 하루 6차례 운행 (용남공항 4000번 노선) · 호텔 캐슬 하차 · 하차 후 택시로 자택까지 이송
문의처	031)228-2149	031)228-3961	031)228-2411	031)228-3824

출처: 수원시청 보도자료<sup>19)</sup>

- 그 밖에도 수원시는 해외 입국자 외에 확진자의 가족 및 접촉자들에게도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19) 수원시청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수원시”, 2020.03.31.

- 시에서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입국자의 가족들에게도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숙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간 확산을 막고자 추진함
- 수원시의 생활시설에는 운영 첫 날인 3월 25일 25명이 입소하였으며, 동월 29일 기준 총 96명이 이용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수원시는 <그림 11>과 같이 확진자 예방·관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제공, 안심숙소·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자가격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목적으로 '자가격리 이탈자' 대상 법적 대응팀을 구성함
  - 최근 수원시 내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이 3월 23일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4개 도시를 이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법적 대응팀을 구성함
- 평택시 또한 지난 3월 24일부터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4일 이내 해외 모든 국가 입국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함
- 모니터링 대상자 윈스톱 관리
  - 용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위하여 자체 개발·운용 중인 윈스톱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용인시의 윈스톱 관리 시스템은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들의 인적사항과 일자별 건강상태, 담당공무원의 지정업무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임
    -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담당공무원이 관리대상자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의 취합 및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요구되었음
    - 이와 비교하여 윈스톱 관리 시스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보건소를 비롯한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즉시 열람이 가능하여 기존의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용인시의 윈스톱 관리시스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범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공유되어 대구시 등 모니터링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배포, 활용될 예정임
- 드론활용 발열상태 체크 및 방역
  - 각 지자체는 학교 주변이나 도로 등 거리방역은 방역차량을 이용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의 실내는 분무기와 펌프 등을 이용한 방역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



라 면적이 넓은 야외지역이나 야외 다중이용시설, 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측면에서 성남시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토지정보과 드론정보팀의 주관으로 드론을 활용한 발열상태 체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성남시는 인구의 이동이 많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드론을 배치하여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하차 승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발열 상태를 체크하고 있음
  -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 열화상 카메라는 일반 열화상 카메라의 구매가 어려워서 대체 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는 기존 열화상 카메라보다 성능이 뛰어나서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열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또한, 성남시는 드론을 방역 활동에도 활용하고 있음. 드론을 이용한 방역활동을 시행하는 경우 소음이 적고, 공중에서 소독제를 분사하는 드론 방역의 특징으로 인해 도심에서 시간 대비 더 넓은 면적을 방역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님
- 성남시의 드론을 활용한 발열상태 체크 및 방역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이며, 도입 지자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일례로 김포시 또한 3월부터 야외공원과 5일장, KOICA(한국 국제협력단) 공공시설 등에 드론을 이용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논산시의 경우에도 시민공원을 시작으로 야외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함

□ 정보제공방식 개선(1) - SNS 서비스 활용

- 논산시는 3월 31일 기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기초지자체 중 한 곳임. 논산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공적 마스크 5부제 실시 이후 공적마스크 판매현황을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일 최대 2,000명까지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게 됨
- 또한, 분석결과 95% 이상의 시민이 논산시에서 제공하는 공적마스크 판매현황 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접속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SNS인 카카오톡을 통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챗봇 서비스에서는 공적마스크의 논산시 내 판매현황 및 구매가능 약국의 지도 정보는 물론, 논산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현황·선별진료소·예방지침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논산시는 챗봇 서비스를 활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의 투명한 전달, 행정업무 신뢰도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수원시는 시장이 직접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3월 15일 기준 190여 차례 코로나19에 대한 수원시 대응 현황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적극적인 방역 행정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용인의 경우 매주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생중계 시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음. 3월 3일과 10일 두 차례 시민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장이 마스크 수급 대책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정례 브리핑 등을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됨

□ 정보제공방식 개선(2) - AI 전화상담 시범도입

○ 성남시는 3월 9일부터 전국 최초로 능동감시자 대상 인공지능 케어콜 상담서비스를 시행한 기초자치단체임

○ 케어콜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하루에 2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을 비롯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증상을 원격으로 진단하는 체계임

- 성남시는 인공지능 시스템 클로바의 케어콜 서비스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관내 대표기업인 네이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염병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AI를 통한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 성남시의 업무협약에 따라 네이버에서는 서비스를 위한 케어콜 시스템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인 세종텔레콤은 클로바 케어콜의 운영을 위한 통신 비용을 지원함

<그림 12>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AI원격 진료 클로바 케어콜의 운영체계



출처: 성남시 보도자료<sup>20)</sup>

20) 성남시청 보도자료. “성남시, 국내 최초 코로나19 대응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시작”, 2020.03.09.

- 이를 통해 확보한 원격진단 정보는 성남시 소재의 보건소에서 리포트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증상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 피해구제 및 생활불편 해소

### □ 긴급재난안정자금 및 재난기본소득 지원

- 재난기본소득 지원 논의는 3월 13일 전주시에서 최초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약 5만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2만 7,158원을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자체 단위로 관련 논의가 확대됨. 3월 27일 기준 경기도와 여주시, 광명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은 지역민 모두에게 1인당 5만~1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충남도·강원도·광주광역시 등 20여개 지자체에서도 선별적 생계지원책을 발표함
-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득감소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해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화성시는 3월 2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재난생계수당 신청을 받았으며, 25일 소상공인 112곳에 전국 최초로 재난 생계수당 1억1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이는 소상공인의 긴급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화성시는 신속 지급을 위해 차수를 구분하여 재난생계수당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1차는 4월 5일까지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2차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3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4월 20일부터는 영업경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1차·2차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신청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일환에서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운영함
  - 재난생계소득의 지급 대상자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회의 결정을 통해 지급이 1회 연장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화성시는 3월 27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약 83만명의 화성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는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씩 제공하기로 결정함
  - 필요 재원 1,660억원은 재난관리기금(450억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440억원), 통합관리기금(770억원) 등을 통해 확보하여 지역화폐 형태로 한시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 등과 협의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비교하여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
  -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도 매출액 기준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2019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종사자가 지원의 대상임
  - 운수업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가 대상이며, 아산시의 경우 약 700여 명이 본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원의 대상임
  - 상기한 대상 외에도 아산시에서는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를 비롯한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에게도 4월 중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고양시 또한 3월 25일 위기극복지원금 10만원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개로 고양시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약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됨
  - 고양시의회를 비롯하여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80% 지급방식과 비교하여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재원 확보 노력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 선정방식 결정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등의 근거 마련, 신청방법 결정, 지역화폐 연계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지급 방식과 형태, 시기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가 요청됨
- 배달앱 개발·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
  - 사회적으로 오프라인 구매 행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 행태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소위 배달 문화가 확대되어가던 가운데, 최근에는 신종코로나19 우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장 방문을 비롯하여 외부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온라인 구매·배달 행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및 운영 전략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살펴보거나, 오프라인에서 확인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주문, 배달 요청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됨
    - 한편,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변화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에 대하여 소상공인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아 배달 플랫폼 지원 등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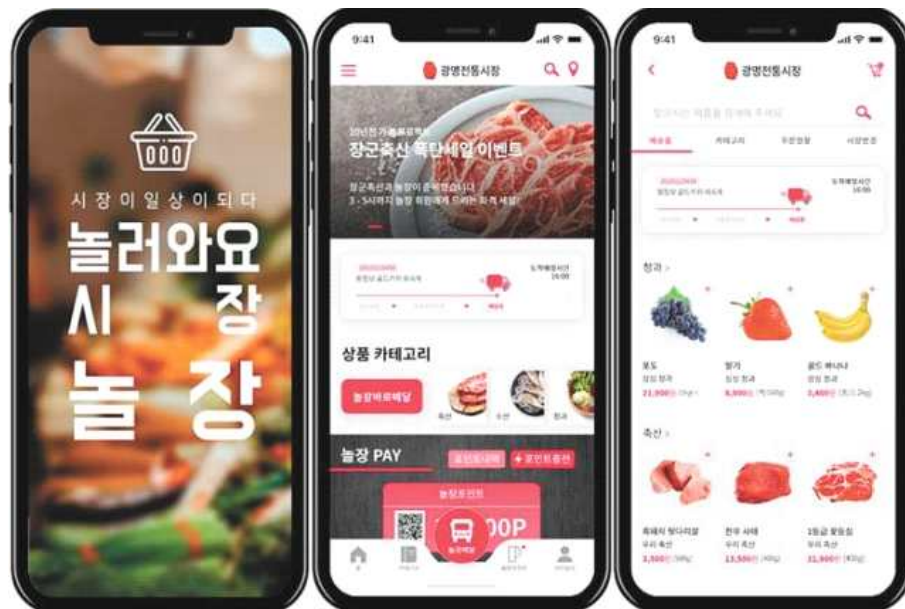


- 이러한 측면에서 창원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대상 3종 지원 정책으로 자금, 판매, 활력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정책을 추진함
  - 먼저, 소상공인 판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나들가게 사후 지원 사업, 소비재-소비자 판매 매칭 지원 사업을 추진함. 이러한 예로 업종별 플랫폼·검색광고·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판매수수료, 가맹비, 홍보비와 판매에 대한 택배비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을 추진함. 또한 매장 방문객이 줄어 피해를 입고 있는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포장 판매할 수 있도록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 등을 추진함
  - 둘째로 활력 기반 마련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 진해구 고용 위기지역 연장 및 성산구 신규 지정 추진, 진해중앙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속 추진 등을 실시함. 이러한 사업에는 POS시스템 구축, 입식테이블 설치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성화시장 지정, 노후전선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시설현대화 등 243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포함됨
  - 마지막으로 자금 및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대출 컨설팅, 숙박업 등 피해 사업장 세제 지원을 추진함. 컨설팅 사업의 경우 경남은행과 함께 4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 컨설팅을 운용하여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개인별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임
  - 그 밖에도 위축된 소비심리 자극을 위한 일환으로 창원사랑 상품권의 긴급 추가발행, 대규모·준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상점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창원블랙데이 행사 등을 기획함
- 군산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공공 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를 개발하여 3월 13일부터 제공·운영함
  - 배달의 명수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공공운영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님
  - 또한, 지역 상품권의 결제와 군산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경쟁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 군산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할인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부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위해서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배달의 명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3월 23일 기준, 출시 1주일만에 가입자수가 15,000여명을 돌파, 1일 평

균 2,000여명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문건수는 2,200여건으로 군산만의 주문어플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월 23일까지 누적된 주문금액은 약 5천5백여만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의 결제비율이 6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존 민간 어플의 주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광명시는 3월 17일부터 전통시장 맞춤형 배달앱인 ‘놀장(놀러와요 시장)’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음. 배달앱 ‘놀장’은 광명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부흥을 위해 시민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생계에 부담을 갖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에서 마련된 어플리케이션임. ‘놀장’은 광명 전통시장 상인회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놀장’의 설치와 회원가입이 필요함. 주문한 물건의 배달은 주문한 총 액수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3만원 미만의 경우 3천원의 배달비가 부과되며, 그 이상 구매할 경우 무료로 배달이 가능함
- 구매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100% 교환가능하며, 배달앱 사용 자체에 추가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제 시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과 같이 저렴한 가입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 가능지역은 광명시장을 기준으로 1.5km 이내의 모든 지역임

<그림 13> 광명시 배달앱 놀장 운영 사례 예시



출처: 동아일보 보도자료<sup>21)</sup>

21) 동아일보 보도자료. “놀러와요 시장’ 앱, 안심 주문-배달... 온라인 시장에서 만나요”, 2020.03.18.

- 광명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시민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선착순 1,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며, 선착순 2,000명에게 배달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였음
- ‘놀장’은 배달서비스를 시작한 첫 날 주문이 폭증하여 2시간 가량 서비스가 중단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배달 앱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예로 문경중앙시장은 지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시장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이 댓글을 활용하여 주문하면 구매할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하고 있음
  - 문경중앙시장의 주문배송 서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행된 3월 22일부터 이용이 급증하였으며, 일 평균 80만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퇴근시간에 맞춰 1일 1회로 일괄 배송하는 시스템에서 하루 2회로 확대하는 배송 2부제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배송이 불가능한 읍·면의 고객을 대상으로도 접촉을 최소화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임
  - 문경중앙시장의 ‘장보기 배송서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소비환경에 최적화된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타 지역의 많은 전통시장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안심식당 지정 운영
  - 인천·광주 등에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안전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주민들의 불안심리 회복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지역음식점 매출 회복 등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안전수칙인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장 및 객석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식당 내부 매일 소독하기, 손 소독제 비치 및 손님 출입 시 사용 독려 등을 철저히 실천하는 모범 음식점을 선별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전남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관할지역 내에 있는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34개소 음식점을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남의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취지를 살려, 한 방향으로 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개인의 찬기 사용, 매일 업소 내 자체소독을 중심으로 3대 청결운동(깨끗한 음식·복장·환

경) 등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의미함

□ 1인 1꽃가꾸기 운동

- 과천시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과천화훼협회와 한국마사회, 과천농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화훼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과천농협협동조합에서는 사무실 내 꽃 생활화, ‘1인 1꽃 가꾸기’ 등에 적극 동참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화훼를 우선 구매하는 등의 화훼농가 지원방안을 추진함. 또한 과천시에서는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계획한 ‘꽃 생활화 활성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청과 시 직속기관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에 관내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꽃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추진함

□ 안전약자·취약계층 지원 및 방역관리 체계화

□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고위험군 안전약자 지원관리

- 세종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협력하여 3월 2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돌보기’를 실시하고 있음
  - ‘취약계층 돌보기’ 사업은 코로나19의 취약계층 확산 방지 및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방역, 단계적 취약계층 건강관리, 급식 필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간식꾸러미 전달 등이 포함됨
  - 세종시는 취약계층 돌보기의 일환으로 관내 노약자들을 위해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소독 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예방수칙의 설명 및 안내, 건강상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각 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직접 방문하여 과자·음료를 비롯한 간식과 비타민, 손세정제를 담은 간식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음
  - 그 밖에도 세종시는 관내 버스정류장, 공원 내 놀이터, 운동기구 등을 순회하며 방역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예산군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관내 임신·출산가정에 대해 마스크 지급을 비롯한 각종 예방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임산부와 산모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하고, 약물치료와 같은 의료조치에 있어 제약을 받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에서 추진되고 있음



- 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출산가정과 0세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마스크의 지급, 임산부 엽산제·철분제를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짐
- 예산군은 이 정책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한 지원 외에도 우편·이메일을 활용한 접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의료비 지원혜택도 포함하고 있음

**<그림 14> 예산군에서 시행 중인 임산부 지원 관련 사업**



출처: 예산군 보도자료<sup>22)</sup>

-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자가격리자 발생시 활동지원사를 파견함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대부분 휴관하고 2차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외출 자제 등이 권고되면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산시는 이용시설들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의 파견 및 파견시간 확대 등의 지원 서비스 확대를 실시함
- 또한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남양주시 등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접촉을 통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안전 진료부스를 운영함
  -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구 의사회가 협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서울 강북구의 경우 보건소와 강북구 의사회가 TF팀을 결성하여 구 보건소의 인력 소모를 보충하고 있음. 또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강북구 의사회는 회원 12명을 보건소에 파견하여 오전, 오후 교대 근무를 통해 보건소 직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봉사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안전한 검체 채취 방식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짐. 이러한 자료공유를 통해

22) 예산군청 보도자료. “예산군보건소,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에게 마스크 지급”, 2020.03.17.

- 강북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부스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음
-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글러브 포트와 유사하게 부스 전면에 설치된 2개의 구멍에 손을 넣어 환자를 진료하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스를 활용해 진료를 진행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여 구역질, 기침을 통한 의료진과 환자 간의 교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15>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 운영 사례 예시



출처: 해외문화홍보원 보도자료<sup>23)</sup>

- 관악구 양지병원, 남양주시 제2청사 및 풍양보건소 또한 위킹 스루 형식의 1인 감염안전진료 부스를 설치함. 이를 통해 차가 없는 환자나 스스로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들도 이용가능하고 검체 채취부터 부스 소독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아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의료인이 보호복을 입고 벗는 데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경감시킬 수 있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만족감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됨

#### □ 민관협력 방역체계 운용

- 인천시 미추홀구는 민·관이 협동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상시방역과 확진자 주변 특별방역 등을 포함 24시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미추홀구는 보건소 방역기동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자율방역단 등의 인력을 투입하여 총 53개 반 606명이 참여하는 구 단위의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음. 구 단위 방역단은 주로 민원요청에 의한 상시방역과 확진자 주변 특별 방역을 수행함
  - 또한, 구에서는 시민단체 4곳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방역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역을 보

23) 해외문화홍보원 보도자료. “승차 진료’에 이어 운영 시작된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 2020.03.16.

완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3월 18일 기준 누적 방역횟수는 총 17,247회를 기록함

- 그 밖에도 구에서는 구 소재 2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각각 17대씩, 총 357대의 소독기를 배치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민들의 보건 불안감을 경감시키고자 함

##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 성남시, 이천시, 전주시, 서울 성동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등의 지자체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지역경제와 상권활성화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산시 또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음
  - 고양시에서도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줄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 있으나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문제, 사회안전망 강화 및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 돌봄 공백 해소, 지역사회와 정부 간 협력·연대를 통한 안전 확보 방안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직면한 지역사회의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모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울산시를 비롯하여 영주시, 김해시 등에서는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지역 기업체와 지역 내 각 가정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주 ‘시민방역의 날’을 지정하여 범시민적인 방역 참여 운동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열린 공간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접촉 표면을 닦아주는 소독이 더 중요하며,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으로서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외부활동 자제, 감염 의심 시 선별진료기관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검사 실시, 자가격리시 원칙 준수 등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조됨
  - 이는 결국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및 지자체 방역체계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 하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담보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및 고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협력 하에 정부와 전문가, 민간의료기관, 시민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정비하여 고양시 사회 전반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18호

**발행일** 2020.04.02.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 PAGE** [www.gyri.re.kr](http://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